

< 컬렉터가 사랑한 세기의 작품들 >

정윤아 (홍콩 크리스티 스페셜리스트)

1. 제프 쿤스: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미국인의 예술가

Jeff Koons (B. 1955)

미국 펜실바니아 출생. 메릴랜드 예술대학과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미술 전공. 대학 졸업 후, 예술가로서의 성공을 꿈꾸며 1977년에 뉴욕으로 이주. 1980년, 자격증 획득 후, 월 스트리트에서 주식 상품 거래인으로 일하면서 창작 활동. 1970년대 후반, 미니멀리즘과 팝아트를 혼성한 작품을 발표하면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 1980년대 중반, 미국 대중문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연작들을 발표하면서 미국 팝아트의 계보를 잇는 대표 미술가로 자리매김. 현재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대표 연작들

새로운 것들 전작 The Pre-New (1979)

미국에서 생산되는 가정용 가전제품을 형광등 같은 조명에 덧붙인 연작. 댄 프래빈 (Dan Flavin, 1933-96)과 상품과 기호의 약호화에 주목하면서 쇼핑을 자아표현으로 받아들이는 현대인의 소비문화를 반영한 하임 스타인바흐 (Haim Steinbach, B. 1944)가 혼합된 듯한 작업.

새로운 것들 The New (1980-1988)

미국의 가장 대중적인 전기청소기 메이커들의 제품을 마치 유물처럼 등이 켜진 진열장에 넣어 제작한 연작. 레디 메이드의 선구자인 뒤샹의 계보를 잇는 작가임을 천명하는 듯한 작업.

평형 The Equilibrium (1985)

농구공을 수족관에 넣어서 수면에 띄우거나(50/50 Tank) 수중에 부양(Total Equilibrium Tank)하도록 연출한 작품들과 함께 미국의 유명 스포츠용품 회사인 나이키의 농구 관련 포스터들을 청동 주물로 제작한 잠수용 호흡기, 고무 보트와 함께 전시. 언젠가 가라앉을 수 밖에 없는 농구공의 인위적인 부양을 통해 스포츠를 통한 신분 상승에 대한 헛된 꿈을 고집은 연작으로 쿤스의 수작으로 평가됨. 이 연작의 전시를 통해 뉴욕 미술계에서 스타로 급부상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사치와 타락 Luxury and Degradation (1986)

미국의 유명 술 회사들의 광고 이미지를 캔버스에 옮기고, 특정 브랜드에서 생산한 한정판 선물용 오브제들을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으로 재창조. 술을 신분상승, 사치나 섹스 등의 이미지와 결합하는 광고를 통해 미국 사회의 단면을 조명.

조각상 Statuary (1986)

프랑스 군주 루이 14세의 초상 조각에서부터 싸구려 장식용 조각 및 토끼 풍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오브제를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으로 제작.

진부함 Banality (1988-89)

싸구려 장식용 조각상을 대형 나무 조각으로 탈바꿈하여 제작. 이전 연작들에서도 사용된 바와 같이 이러한 기법을 통해 쿤스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보여주는 '기묘함 (uncanny)'이라는 특유의 감성과 더불어 저급과 고급의 경계를 넘나드는 지점에서 앤디 워홀의 계보를 잇는다.

메이드인 헤븐 Made in Heaven (1989-1991)

이태리의 포르노 스타 배우 출신 국회의원이었던 치치올리나(Ilona Stalla) 와의 적나라한 성 행위 장면을 조각, 사진, 회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 1991년,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결혼을 함으로써, 작업의 컨셉을 완성. 혼자서 몰래 보는 관음적 포르노를 부부의 성생활이라는 도덕적인 주제에 적용하여 공개하는 것이 됨. 이로써 프라이버시를 공적인 장소로 끌어들이는 작업으로 확장.

축하 Celebration (1994-)

치치올리나와의 이혼으로 양육권을 빼앗긴 쿤스가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시작하게 된 것으로 알려진 연작. 어린 아이들의 생일 축하 파티에서 영감을 얻어 미국 아이들의 파티에 등장하는 다양한 소품들을 회화와 조각으로 제작. 이 연작에서도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극사실주의 회화와 마치 그러한 비현실적인 회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조각들이 쿤스 특유의 감성을 보여준다. 특히, 거울처럼 매끄러운 표면 처리 등 완성도 높은 조각상의 테크닉으로 인해 컬렉터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게 되면서 경매 최고가를 기록.

고대 유물Antiquity (2009-)

제목 그대로 고대 조각상들, 특히 그리스 로마 조각상들을 자신의 특허 재료인 거울처럼 매끄럽게 처리된 색깔을 입힌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상을 제작.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고대 조각상들이 현대적인 색상의 반짝이는 조각상으로 재탄생.

응시하는 공 Gazing Ball (2013-)

다빈치의 모나리자에서부터 고전 거장들의 회화와 고대 조각상들에 푸른 색 공을 얹어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도록 제작.